

코스피지수 1,399.15 (-13.27)

코스닥지수 520.93 (+1.30)

금리(국고채 3년) 4.25% (-0.02)

원·달러 환율 1,257.50원 (-4.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대형유통업체 '등록제' 도입, 재래시장 규제 완화로

재래시장·골목상권 햇볕드나

당정이 대형유통점 소속 슈퍼마켓(SSM)의 난립을 억제하고 재래시장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SSM의 지역 상권 침식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동안 영업신고만으로 문을 열 수 있었던 '이마트에브리데이'...

당정은 그러나 민주당 등 정권이 제안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

기업형 슈퍼 등 무분별 진출 억제 추진

업체선 "장사하지 말란 말이나" 반발

허가제나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은 현법이나 WTO(세계무역기구)서비스 협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매장면적 3천㎡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재래시장 등을 '대규모 점포'로 규정...

이 때문에 전체 건물 면적이 매장 면적보다 훨씬 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매장 이외의 구역에 영화관, 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지만...

양동시장 등 광주·전남 재래시장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상인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려 했으나 관련 규정 때문에 무산되고는 했다.

개정안은 또 매장 내 판매시설의 면적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40%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고쳤다.

정대규 양동북개사가 상인회장은 "대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등으로 갈수록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죽고 있다"며 "법 개정에만 그치지 말고 시장별 특성을 고려

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역 대형마트 관계자는 "슈퍼마켓 사업은 유통업이 발전하고 고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다"라며 "그렇게 한다고 중소기업자들이 살아남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슈퍼(롯데슈퍼)와 GS리테일(GS슈퍼), 홈플러스(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 운영하고 있는 소형매장(300~1천㎡ 규모)은 전국 429곳(2008년 기준)으로, 이들은 올해 안에 170개의 점포를 새로 열 계획이다.

이/문미지 기자 emlee@kwangju.co.kr

▲SSM=Super SuperMarket. 점포 규모에 관계없이 대형 유통업체가 적용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말한다.



제철 수산물 먹음시다

(주)농협유통은 16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 수산매장에서 병어, 꽃게, 참치자미 등 몸에 좋은 제철 수산물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중소도 구조조정 ... 지역 기업 긴장

光銀 대출기업 140곳 등 이달말까지 신용위험 평가

정부가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의 육성을 가리기 위해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 평가에 나서기로 해 지역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6일 광주은행 등 금융업체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외부감사 대상이면서 신용공여액(대출) 5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인 1만여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늦어도 이달 말까지 영업실적과 현금흐름 등을 토대로 신용위험 기본평가를 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으로 이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나 공공기업은 제외된다. 채권단은 기본 평가에서 불합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는 세부 평가를 해 구조조정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에서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곳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D등급(부실기업)은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이어서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감당 못하는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구조조정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신용위험 평가대상인 전국 1만여개 기업중 광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한 지역 기업은 140여개에 달한다. 채권단은 은행별로 50~150개씩의 중소기업이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영업이익 3년 연속 마이너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산 건전성 '요

주의 이하' 등 4개 세부평가 항목에 모두 해당돼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평가 원칙만 정했을뿐 구체적인 세부평가 작업에 들어가지 않아 140여개 업체중 몇개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지 아직은 알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중소기업들의 희생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 하남산단에서 전자제품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4)씨는 "이번 구조조정이 알짜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도 있겠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업체로서 걱정이 더 앞선다"며 "무차별적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불황에도 대형마트·백화점 매출 '쑥' 선운지구 단독 택지도 판매 가능

5월 들어 각각 작년 동기비 1.6%, 5.4% ↑

국토부 개정안 이달중 시행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이 각각 2개월과 3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그러나 소비심리 개선의 척도인 내구재 매출이 여전히 부진한데다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이던 명품 매출 증가세가 확연히 꺾여 소비경기가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3대 대형마트와 3대 백화점의 5월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6%와 5.4% 늘어났다.

대형마트는 4월(0.1%)에 이어 두달 연속 증가했고, 백화점은 3월 이후 석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대형마트에선 스포츠(7.7%), 식품(3.3%), 가정용품(3.2%) 분야의 매출호조가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고, 백화점은 명품(14.7%), 잡화(13.7%), 식품(8.0%), 여성 캐주얼(3.8%) 분야의 매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균 구매건수는 백화점이 4.7% 늘어났던 비해 대형마트는 0.6% 감소했고, 구매단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각각 2.3%, 0.7% 올랐다.

이/연합뉴스

광주 선운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 용지와 상업용지, 업무용지에 대한 전매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도 소유권이 전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만 전매가 허용됐다.

다만, 단독주택용지와 상업, 업무용지의 전매가 허용되면 전매 횟수 제한은 없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최초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다.

이/연합뉴스

이를 받아야 하고 최초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공급되는 선운지구 단독주택지 139필지(주거 전용 53필지·점포겸용 86필지)의 경우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공측은 지난 11일 선운지구 단독주택지에 대해 기존 택지개발촉진법(19조 2)에 따라 '소유권이 전 전제'는 전매가 제한된다'는 내용의 매각조건을 낸 바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기업 지앤알, 자원메디칼 지분 매각 다음, 주유소별 가격고시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기업 지앤알(대표이사 최오진)은 16일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자원메디칼 지분 100%를 90억 원에 매각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지앤알 관계자는 "이번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로 태양광 관련 연구

산업으로의 사업 확장이 가능하게 됐다"며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 광산구 양동원에 본사를 둔 지앤알은 지난해 10월 의료기 전문업체인 자원메디칼을 인수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후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지도서비스에 전국 주유소별 유가정보를 게시한 '주유가격 서비스(local.daum.net)'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용자는 지도에서 전국 주유소 1만300여 곳의 휘발유·경유 가격 정보를 브랜드별 최저가 순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유소별 유가 비교 검색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Includes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and price.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land acquisition, investment, and property management. Contact: 062)973-9174.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land acquisition and property management. Contact: 383-5221.

대인동상일부동산.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land acquisition and property management. Contact: (02)223-1140.